

노병천의 손자병법 인문학

글
노병천 미국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박사
전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전 미국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총장
현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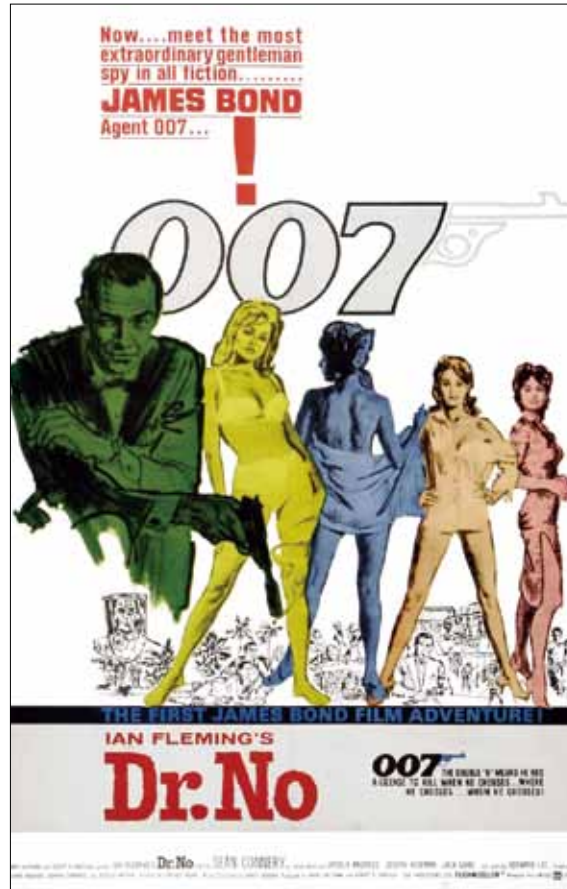
26

007은 손자병법에도 있다 역사를 바꾼 스파이들의 활동

무소불용간(無所不用間)

- 『손자(孫子) 용간 제13편』

1962년에 1편이 나온 후에 꾸준히 제작되어 2015년에 24편까지 만들어진 영화는 무엇일까? 그렇다. 007 영화다. 왜 이 영화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일까? 재미있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몰래 엿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스틸을 만끽하면서 멋있게 행동하는 스파이에 매료되기도 한다.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007 영화는 스파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다. 스파이라 함은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고 보안조치를 무력화시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962년 007 시리즈의 첫 영화였던, '007 살인번호'와 2015년 24번째 007 시리즈인 '007 스펙터'



조르게라는 첩보원이 있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스탈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르게는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중국 상해 주재 프랑크푸르트 신문사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오자키 호주미란 일본인을 포섭한다. 그리고는 1933년에 일본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오자키를 일본수상 고노에 후미마로의 중국문제 브레인으로 잠입시켰다. 또한 조르게는 주일 독일대사인 오토에게 접근해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한다. 덕분에 독일에 관한 정보는 오토에게서, 일본에 관한 정보는 오자키에게서 얻어 양국의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그 결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기 며칠 전, 침공 일자(1941년 6월 22일)와 병력의 수까지 정확하게 스탈린에게 보고하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특히 그는 오자키를 통해 일본의 주 공격 대상이 소련에서 미국과 영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당시 일본 최고의 국가기밀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이 황금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스탈린은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국경을 지키던 수십 개의 사단을 즉각 서부전선에 투입했고, 이런 과감한 조치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한 명의 첩보원이 유출한 정보가 세계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리하르트 조르게
(Richard Sorge, 1895. 10. 4. ~ 1944. 11. 7.)

조르게가 전시 계엄 하의 일본에서 암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소수에게만 공작했으며, 돈을 사용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독일군이 소련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던 투하체프스키 장군을 제거한 공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독일은 상호 긴밀히 제휴하고 있었고 군사 면에서는 소련의 대표로 투하체프스키 장군이 활동하고 있었다. 투하체프스키 장군은 군사적인 천재로서 그의 전략은 전 세계의 군사학도에게 대단히 권위 있게 알려져 있다. 문제의 발단은 투하체프스키가 주장하는 새로운 전략구상에 있었다. 1차 대전 당시 보병의 보조

용도로 사용되었던 전차를 대량생산해서 대규모 기갑부대를 주축으로 화력전과 속도전을 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이었다. 위협을 느낀 독일군 수뇌부에서는 그를 제거하는 모략에 착수했다. 먼저 독일군부에 보유하고 있었던 투하체프스키의 문서를 조작했다. ① 독일이 투하체프스키에게 돈을 지불한 것처럼 위조 지불증을 만들었다. ② 투하체프스키가 독일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위조 수령증을 만들었다. ③ 독일모략부장이 수여한 것처럼 위조 감사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위조 문서를 만든 후에 이를 독일비밀경찰에 출입하는 소련 스파이에게 슬쩍 알려 주었다. 1937년 5월 소련은 이 위조 문서를 독일에게서 200만 루우블에 샀다. 평소 군부의 쿠데타를 우려하고 있었던 독재자 스탈린은 이 첩보를 접하자 곧바로 투하체프스키를 처형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인 1939년 9월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투하체프스키가 구상했던 기갑부대 주축의 '전격전'으로 맹위를 떨쳤다. 한 명의 탁월한 천재가 이렇게 어이없이 적의 제거공작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조르게를 기념하는 우표 / 출처 : www.bbc.com/future/story/20170801-the-ghostly-radio-station-that-no-one-claims-to-run

無 所 不 用 間
무 소 불 용 간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손자병법 용간(用間)편에서도 요즘의 스파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스파이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 향간(鄉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 등 오간(五間)으로 부르고 있다. 향간은 적국의 주민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른바 고정간첩을 말한다. 내간은 적국의 관리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르게가 오자키를 이용한 것은 바로 내간이라 할 수 있다. 반간은 적의 스파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중간첩이다. 사간은 어떤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결국에는 죽는 스파이를 말한다. 생간은 살아 돌아와서 보고하는 스파이를 말한다. 또 병경백자(兵經百字)라는 병법서에서는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방법 1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16가지 방법 중에 여간(女間)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미녀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해간(孩間)이란 것도 있는데 해(孩)라는 한자는 어린 아이를 말한다. 즉 해간은 어린아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말을 곧이듣지 않을 어른이 어디 있겠는가? 어린아이까지도 스파이로 이용하는 전략, 정말 무섭지 않은가? 이밖에 뇌간(賂間)이라는 것도 있다. 관리나 고위 지도자들을 뇌물로 구워삶는 방법이다. 이렇게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는 5간이나, 병경백자에서 말하고 있는 16간을 보면, 스파이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는 말한다. “명석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는 먼저 간첩을 통해서 적정을 파악한다.” 간첩이 갖다 주는 정보는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간첩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손자는 간첩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고도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간첩을 선발할 수 없다. 그리고 선발된 간첩도 극진한 애정을 보여주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감복(感服)시켜야 충성을 다하는 간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간첩을 통해 얻은 정보도 정말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확실하게 걸러내야 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밀이 유출되면 간첩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사람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군주는 다섯 가지의 간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명석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만이 뛰어난 지혜로 간첩을 써서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을 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손자는 말한다. 미묘하고 미묘하다(微哉微哉)! 간첩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無所不用間)!

전쟁을 다루는 일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도 간첩은 활약한다. 이른바 산업스파이다. 산업스파이는 이해가 상반되는 국내·외 경쟁기업의 최신 산업정보를 입수하거나 교란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기업은 제품이나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경쟁회사에 대한 정보다. 특히 연구개발은 시간·자금·인력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스파이를 동원한다. 앨빈 토플러는 책 ‘권력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권력은 무력에서 자본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지식으로 이동할 것이며, 21세기에는 산업스파이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정보전쟁과 날로 늘어가는 경제·금융스파이가 현재를 특징지을 것이다.” 그의 예견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 발생 건수가 매년 두 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 누적 피해 금액은 400조 원을 넘어서 상태였다. 400조 원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의 사람에 의한 스파이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이나 간부급의 스파이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별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평소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수시로 기밀유출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無 없을 무
所 바 소
不 아닐 불
用 쓸 용
間 틈 간

스파이도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손자는 중요한 말을 한다. “수년 동안 군대가 서로 대치하지만 (相守數年), 결국에는 단 하루의 싸움으로 결판난다(以爭一日之勝).” 단 하루 만에 오랜 대치 국면이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스파이가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 때문이다. 이제 정신 차려 주변을 돌아보자. 회사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없는가? 사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는가? 특별한 일이 없는 데도 갑자기 방문이 잦은 사람은 없는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데도 자주 술자리를 권하는 사람은 없는가?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하는 앞집 아저씨는 혹시 간첩이 아닌가? 꺼진 불도 다시 보지만 아는 사람도 다시 봐야한다.

은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지식을 음미하지 않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인터넷이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등의 뇌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담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나왔을까? 비록 이 시대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똑똑한 체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헛똑똑이가 많다. 이런 헛똑똑이가 그저 개인으로만 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될 때 문제는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평전투에서의 조괄과 같이 경악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

27

헛똑똑이가 조직을 망친다

40만 명이 생매장 당한 장평전투

장부지기능활봉(將不知其能 日崩)

- 『손자(孫子) 지형 제10편』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명의 헛똑똑이 리더 때문에 40만 명이 나 생매장을 당하다니! 세상에는 헛똑똑이가 있다. 헛똑똑이는 겉으로는 똑똑한 체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속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마크 볼레인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 “30세 미만은 믿지 말아요.”라고 했다. 왜냐하면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한 알팍한 지식 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20행짜리 시를 외우게 했더니 “인터넷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인기 TV 토크쇼 <투나잇 쇼>는 길거리의 젊은이를 붙잡아 “파리가 어느 나라에 있냐?”고 물었는데 정답자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2007년 미스아메리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천체가 ‘태양’이라는 사실을 몰라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장평전투에서 생매장당한 40만 조나라 병사들의 유해 / 출처 : kknews.cc/zh-mo/history/an8mnk6.html



명나라 때 그려진 백기의 초상화(? ~ 기원전 257년) / 출처 : wikipedia

장평전투는 중국 전국 시대의 판도를 바꾸게 한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이다. 장평의 승리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을 닦았고, 패전한 조나라는 몰락했다. 중국의 고전에도 이 전투를 상당히 중요한 전투로 평가하고 있다. 기원전 260년 4월, 진나라의 장수 왕훤은 군사를 이끌고 상당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동했다. 당시에 상당이라는 마을은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그러나 이미 군민들은 조나라로 도망간 상태였고, 진나라에서는 왕훤에게 상당 군민들을 추격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을 간파한 조나라는 명장 염파를 파견하여 군민들을 접수하고 진나라 군대를 막게 했다. 결국 양국 군대는 중원의 깊숙한 지역에 위치한 장평에서 부딪쳤다. 염파는 아예 장기전을 각오한 듯 장평에 군영과 보루를 세우고 지켰다.

염파가 누구인가? 인상여와 함께 조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던 장군이다. 장평의 전투 이전부터 이미 진나라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던 백전노장이다. 이런 염파가 장평을 지키면 아주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염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짰다. 조나라에 퍼져있던 진나라의 첩보조직을 통해서 염파에 대한 온갖 나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곁들였다. “진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사의 아들 조괄이 장수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극적인 방어태세에 불만이 있었던 조나라 왕은 염파를 조괄로 갈아치우려고 했다. 그러자 인상여는 그 일을 반대하며 말했다. “조괄은 그의 부친이 남긴 병법서만 읽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임기응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조괄의 어머니도 그가 총사령관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말했다. “전쟁이란 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런데도 괄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있소. 조나라가 괄을 장수로 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를 장수로 삼았다가는 분명 그 애가 조나라 군대를 망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왕은 결국 조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조나라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조괄이 총사령관으로 장평에 도착하자 그것을 기다렸던 진나라에서는 몰래 왕훤을 불러들이고 백기를 지휘관으로 보냈다. 백기가 누군가? 백기는 장평전투를 포함하여 조나라 군대를 무려 60만이나 참살했으며, 전장에서 37년간 지휘하며, 70여 개의 성과 165만의 적군을 섬멸한 명장 중의 명장이었다. 특히 포위전의 명수로서 중국사상 가장 섬멸전을 잘 이끈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아



산서성 가오핑시에 위치한 장평전투의 유물 발굴지

불패전신(不敗戰神)이라 불리며 중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로 숭앙을 받는 장수였다. 과연 불패전신 백기는 조괄을 상대로 그의 특기인 포위작전을 여러 차례 펼쳐 이들을 격파해 나갔다. 그러나 40만이라는 대군을 한 번의 회전으로 궤멸시킬 수는 없었다. 백기는 조괄의 군대를 포위하여 한 달 반을 가두었다. 그러자 조괄의 진영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고 마침내 시체를 뜯어먹을 지경이 되었다. 이때 조괄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여러 차례 진나라 군대를 향해 돌진을 시도했지만 포위망은 아주 견고했다. 결국 조괄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진을 돌파하다가 화살에 맞고 전사했다. 조괄이 죽자 곧 40여만의 조나라 군 전원이 영채를 열고 항복했다. 포로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사기에 따르면 진군이 포로들을 계곡으로 몰아넣고 입구를 막아 모두 생매장했다고 한다. 40만 명의 생매장!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將 不 知 其 能 曰 崩
장 부 지 기 능 알 붕

이러한 사실을 최고사령관이
모르고 있다면 그 부대는 붕괴된다.

將 장수 장
不 아닐 불
知 알 지
其 그 기
能 능할 능
曰 말씀 왈
崩 무너질 붕

손자병법 지형(地形) 제10편에 보면 장수가 패하게 되는 여섯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중에 부대를 무너뜨리는 장수는 이렇다. “장수가 화를 내면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적을 만나면 신경질을 내며 제멋대로 싸우는데 이러한 사실을 최고사령관이 모르고 있다면 그 부대는 붕괴된다.”(大吏怒而不服 遇敵愾而自戕 將不知其能 日崩) 이게 무슨 말인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예하 장수의 성격적인 결함을 잘 모르고 그에게 지휘권을 맡기면 부대를 붕괴시킨다는 경고다. 조나라 왕이 명장 염파를 잡아치우고 조괄을 지휘관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도적떼를 잡으려면 도적의 우두머리를 잡아라.’(擒賊擒王)는 말이 있다. 36계 병법의 제18계다. 싸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적국의 왕을 잡아 버리는 것이다. 진나라의 계략은 이 병법에 의해 성공한 것이다. 조괄은 외는 것을 잘 해서 병법을 입으로 달달 외고 다녔다. 그 속에 있는 의미도 몰랐고 더구나 실전 경험도 전혀 없었다. 전형적인 헛똑똑이다.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에는 “이름은 번지레한데 그 속에 실력이 없는 것을 ‘빈 껍질’이라고 한다.”(名不勝實者耗)는 말이 있다.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이라는 뜻이다. 조선조의 「무신수지(武臣須知)」라는 책자에는 이에 걸맞은 어귀가 서문에 적혀있다. “학문은 반드시 요점을 알아야 하며, 또한 성실하게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만일 겉으로만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실용화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날마다 천장의 병서를 읽고 가슴속에 만 권의 서적을 간직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다만 보고 듣는 자료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병서를 읽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는 질책을 면치 못한다. 아! 오늘날 병법을 말로만 자랑하는 병폐는 참으로 한심하다. 다만 글귀의 출처를 들어 유식한 척 인용만 할뿐더러 그 병법의 진수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깊이 새겨 둘 얘기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강동이 시끄럽다. 빈 그릇이 제일 큰 소리를 낸다. 허장성체(虛張聲勢)라는 말이 있다.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도 허세로만 떠벌리는 것을 말한다. 내외허식(內虛外飾)이라는 말이 있다. 속은 비었는데 겉치레만 한다는 뜻이다. 호왈백만(號曰百萬)이라는 말이 있다. 말로는 백만을 외치지만 실제는 얼마 안 되는 것을 말한다. 호언장담(豪言壯談)이라는 말이 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

불실(華而不實)이란 말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영어속담에도 보면 “짖는 개는 좋은 사냥개가 못 된다.”(A barking dog was never a good hunter.)는 말이 있고,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A barking dog never bites.)는 말이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뭐든 아는 척, 뭐든 잘하는 척 떠드는 사람이 꼭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때가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빈 수레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삶의 과정은 빈 수레를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수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사람의 격이 결정된다. ☞

말과 실력이 일치되도록 날마다 수레를 채우자.